

## 태평양 발견 500주년을 앞둔 파나마

여승철

파나마는 서북쪽으로 코스타리카, 남동쪽으로는 콜롬비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미지역 최남단에 위치한 열대지방의 나라다. 영토 면적이 총 75,420km<sup>2</sup>으로 남한면적에서 전라도(20,150km<sup>2</sup>)를 뺀 정도의 크기이며, 총인구는 약 350만 명(2011년 기준)에 불과하다. 인종구성은 조금 복잡하다. 인디오와 백인의 혼혈인 메스티소(mestizo), 흑인과 백인의 혼혈인 물라토(mulato)가 전체 인구의 약 60%에 육박하며, 흑인<sup>1)</sup> 13%, 백인 11%<sup>2)</sup>, 인디오 10%, 중국계 5%, 기타 1%이다.<sup>3)</sup>

파나마는 지협(isthmus) 국가로서, 폭이 좁고(파나마운하의 길이는 82km에 불과하다), 바나나처럼 길쭉한(676km) 모양이다. 내부지방은 평야와 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륙 한가운데로 가파르고 바위투성이인 산악지대가 형성되어 있다. 가장 높은 산은 볼칸 바루(Volcán Barú)로 높이가 3,454미터이다. 해안은 평편한 편이며, 많은 자연 항만을 갖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모든 국가들의 지형이 남북으로 뻗어있는 것과 달리 파나마는 동서로 뻗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sup>4)</sup>. 모래시계의 한가운데 잘록한

1) 흑인은 대부분 카리브 해 지역에서 넘어왔거나, 식민 시대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끌려왔다.

2) 백인은 라틴아메리카 대부분의 국가와 비슷하게 역사적으로 파나마의 정치, 경제 지도층으로 군림해 왔다.

3) 이렇게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주요 배경 중 하나는 19세기 중반부터 진행된 대서양에서 태평양을 잇는 파나마 횡단 철도건설과 파나마운하 공사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국가로부터 이민자가 들어왔다는 것이다.

4) 이 때문인지 현지인도 가끔 동쪽 지역에서 서쪽지역을 가리킬 때 북쪽으로 표현하는 일이 있다.



파나마 지도

부분과 같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폭이 가장 좁은 지역에 위치하여 파나마는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 시켜주는 주요 루트로 발전해 왔다.

파나마의 수도 파나마시티는 파나마운하가 끝나는 태평양 연안에 자리하며, 파나마 전체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120만 명이 살고 있다. 이외 주요 도시는 파나마운하의 대서양쪽 시작부분에 위치한 자유무역지대 콜론(Colón)과 서부지역 내륙에 위치한 다비드(David), 산티아고(Santiago) 등이다. 파나마시티는 중남미 다른 도시와는 다르게 먼발치에서 바라보면 우뚝 솟은 높은 건물들이 마치 미국의 발전된 도시를 보는 것 같은 인상을 풍긴다. 실제 많은 외국 방문객은 파나마시티를 ‘리틀 뉴욕’ 또는 ‘리틀 마이애미’라는 애칭을 사용해 부른다.

파나마인들의 문화적 기반은 유럽(특히 스페인)으로 보지만, 카리브해와 아프리카 지역의 문화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중국인 출신이 전체 10%에 육박하기 때문에 이들의 문화적 영향도 점차 커지고 있다<sup>5)</sup>.

1513년 9월 25일 스페인 탐험가 바스코 뉴네스 발보아(Vasco Núñez de Balboa)는 유럽인으로서 최초로 태평양을 발견하며, 파나마를 통해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sup>6)</sup> 이후

5) 다국적 문화에 개방적인 이들에게 현재 한류가 비교적 활발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6) 파나마는 2013년 태평양발견 500주년 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준비 중에 있으며, 환



파나마시티 전경

로 파나마는 유럽과 남미를 연결해 주는 주요 교통로이자 무역중계지역으로 발달하기 시작했으며, 16~17세기 아메리카의 최대 무역 통로로 발전하였다. 현재도 파나마운하를 통해 유럽, 미국과 아시아가 활발한 무역활동을 하는 등 파나마는 교통·무역의 요충지로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형적 위치로 파나마는 일찍부터 자유방임적인 자유주의사상과 개방된 경제정책을 받아들였다.

파나마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11년 기준으로 8,590달러(명목 GDP)로 중미지역에서는 코스타리카와 함께 가장 높은 편이며, 파나마운하, 물류창구, 금융, 콜론자유무역지대, 컨테이너 항구 등 서비스 분야 산업이 파나마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sup>7)</sup> 특히 파나마운하에 따른 직접적인

태평양국가인 우리나라도 동 행사에 많은 참여활동을 계획 중이다.

7) 역사적으로 바나나공화국의 하나로 불렸던 파나마에서는 열대지방 특성상 바나나와 파인애플 생산량이 높은 편이지만, 국가 경제 전체수준에서 농업수출 의존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이런 면에서 파나마는 중미 다른 국가와 구분된다.

국가수입이 10%에 달하는데, 미국은 물론, 남미, 아시아 등 세계 각국의 무역 선박이 파나마운하를 지나다닌다(매월 약 1,000척이 운하를 지나고 있다). 또한 파나마운하와 연관된 서비스업이 파나마 국내총생산의 60% 이상으로, 파나마 경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특히 금융과 무역이 가장 많이 발전했으며, 20세기 초부터 미국 달러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더욱 안정적인 면을 보여 왔다고 말하기도 한다. 120개가 넘는 은행이 위치한 파나마시티는 미주 지역에서는 뉴욕 다음으로 활발한 금융 중심지로 알려져 있다. 또한 콜론자유무역지대는 홍콩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자유무역지대이기도 하다. 최근 중남미 지역에서 최고 높은 경제성장률을 반영하듯 파나마시티에는 많은 신축건물이 계속하여 들어서고 있어 지속적인 성장 모습을 볼 수 있다.

1999년 12월 31일 미국으로부터 파나마운하를 인수받을 때만해도 일부 사람들은 파나마운하가 죽음의 호수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미국이 운영해오던 파나마운하를 파나마가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지를 놓고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으며, 이후 파나마 경제의 미래를 밝게 보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예측은 기우에 불과했으며, 최근 유엔 산하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CEPAL)는 중남미 국가 중 파나마의 경제성장률이 2010년대 가장 높을 것으로 발표했다. 파나마는 지난 수년간 특히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예측했던 것과 달리 미국으로부터 파나마운하를 인수한 후에도 파나마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주변 국가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파나마운하는 20세기 파나마 역사의 흐름 한복판에 위치하여 파나마 역사의 물결을 움직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파나마운하는 파나마의 정치·사회·경제·문화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파나마운하가 없는 파나마는 ‘양꼬 없는 빵’이 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 되어 왔던 것이다.

파나마 정부구조는 대통령중심제의 민주공화국이다. 하지만 행정부가



현재 파나마 경찰청은 군대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국경일을 맞아 행진 중인 파나마 경찰

입법부와 사법부에 비해 매우 큰 권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성숙도 측면에서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은 5년 임기이고 재임은 불가능하며(연속이 아닌 재출마는 가능), 두 명의 부통령을 두고 있다. 국회는 9개 지방에 걸친(인디오 반자치지역인 산 블라스 포함) 78명의 단원제 국회로 되어있으며, 임기는 5년이다. 사법부는 9명의 판사로 구성된 대법원과 일반법원, 지방법원 등이 있다. 이외에 독립기관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으며, 선거는 의무적이다.

파나마 헌법은 콜롬비아로부터 독립 후 1904년 제정되었으며, 이후 1941년, 1946년 및 1972년 총 4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헌법이 바뀔 때마다 행정부의 파위는 늘 입법, 사법부보다 월등했으며, 현재도 행정부의 파위가 눈에 띄는 정도로 강한 편이다. 특히 독재정부 하에서 행정부의 파위는 무소불위 격이었다고 볼 수 있다. 1968년부터 1989년간 군사독재정권하에서 군부는 헌법상 제4의 정부기관으로 자리 잡았으며, 행정, 입법, 사법 3부가 군부와 협력해 나가도록 헌법으로 명시하였다. 동 기간 중 군부 지도자 오마르 토리호스(Omar Torrijos)와 노리에가(Manuel Antonio Noriega)의<sup>8)</sup> 통치하에서 행정부의 수장이었던 대통령은 사실상 극히 제

한적인 권한을 행사하였으며, 실질적인 권한은 이들 두 명의 군부지도자들이 쥐고 있었다. 군부정권 이후 1990년부터 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서며, 민주주의가 성숙한 단계를 향해 발전해 왔으나, 아직도 군부정권하에서의 권위주의적 헌법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고 있다.

파나마의 정당은 역사적으로 다수의 정당들이 존재하였으나, 실제 가장 큰 정당은 1978년 토리호스 군사독재시절에 창설되었던 좌익성향의 민주개혁당(Partido Revolucionario Democrático: PRD)과 아리아스<sup>9)</sup>가 창당한 파나메니스트(Panameñista)당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소수정당이던 민주변화당(Cambio Democrático: CD)의 창당인 마르티넬리(Martineli)가 2009년 대선에서 파나메니스트당과 연합하여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집권당이 되었다. 2011년 이들 연합여당이 깨지고 민주변화당이 독자적인 제1여당이 되었다. 2014년 대선에서는 민주변화당과 파나메니스트당, 민주개혁당이 차기 정권을 노리며 3파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파나마는 역사적으로 19세기까지 중미가 아닌 남미에 속했다. 남미 국가인 콜롬비아로부터 1903년 독립할 때까지 콜롬비아의 일부 지방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만약 미국이 운하 건설 대상지를 니카라과로 결정하였다면 현재 파나마는 주권국가로서가 아니라 콜롬비아의 일부지역으로서 남아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파나마는 콜롬비아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세계무대에 함께 서 있으며, 비록 콜롬비아보다 규모는 작으나 빠른 속도로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다. 작지만 빠른 속도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파나마에 현재 많은 투자가들과 미국 및 유럽인들이 은퇴 후 이민 선호지

8) 오마르 토리호스는 비록 역사속의 군부독재자로 남아있으나 많은 파나마인들은 그를 개발독재자로 보고 있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반면, 1989년 미국정부에 의해 체포되어 미국 법정에 선 후 2011년 프랑스로부터 추방되어 현재 파나마 유치소에 들어가 있는 노리에가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있다.

9) 아리아스(Arnulfo Arias)는 1940~41, 1949~51, 1968 약 2주간 세 차례 대통령직을 수행하였으나 군부 쿠데타 등에 의해 물러난바 있다. 파나메니스트 당은 아리아스가 1932년 창당하였으며, 창당인의 이름을 따서 아르눌프당(Partido Arnulfista)으로 부르기도 했다.





파나마운하 갑문을 통과하는 상선

역으로 점차 부각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파나마는 눈부신 경제발전과 함께 아직까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계급, 인종 간 차별, 빈부격차, 파나마운하의 지속적 발전가능성 여부 등 여러 가지 부닥쳐야 할 문제가 남아있다.

---

여승철 - 주우루과이 한국대사관 2등서기관 겸 영사